익명 불자, 동국대 발전기금 6억여 원 기부

지난해 12월에만 2차례 억대 보시
현재까지 총 13억1000만 원 전달

동국대 발전을 위해 2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던 익명의 불자가 또다시 동국대에 기부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익명의 불자가 동국대를 방문해 아껴 모은 정재 6억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독실한 불자인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 2009년 3억 원, 2017년 2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2억 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은 이 기부자는 "불자로서 동국대가 더욱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이번 기부는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의 권선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스님들의 병원비 지원과 호스피스 병동 개원에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부의 소감을 밝혔다.

총장 보광 스님은 "기부자의 큰 뜻을 깊이 새겨 동국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기부는 스님들의 의료지원과 2019년 상반기에 완공될 호스피스 병동 건립에 소중하게 잘 사용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는 이번 기부금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승가의료 지원과 호스피스 병동 개원을 위한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스님과 신부가 논하는 '종교와 장애'

보리수아래, 1월 26일 장애 인식 개선 세미나

스님과 신부가 한자리에 모여 각 종교 속 장애인식과 개선점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열린다.

불자 장애인 단체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1월 26일 서울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스님과 신부가 만나 종교와 장애를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비구니 수행관 관장 담준 스님의 '불교윤리 측면에서 본 장애'에 이어 前성 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 원장 이수철 프란치스코 신부의 '가톨릭에서 보는 장애' 등이 발표된다.

이어 보리수아래 회원인 홍현승 씨와 이상복 파주 한사랑공동체 원장의 '내가 바라는 종교'로 장애인들이 현장 목소리와 함께 이계경 조계종 전문포교사의 '성경과 불경에 나타난 장애인'이 발표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은 "장애인들이 느끼는 종교계의 장애인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한국정신문화 알리기 추진

1월 5일 김성림 회장 취임 및 11대 집행부 구성

국제포교사회가 새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적극 나선다.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는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김성림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제11대 집행부 구성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제11대 집행부는 김성림 회장을 필두로 김용언, 이재홍, 박상규, 조정희, 사공옥경 부회장과 이순풍, 이주미 감사 등으로 회장단을 조직했다.

김성림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며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사찰을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선문화를 비롯한 한국 정신문화의 진수를 알리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불교를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문화교류의 주체로 한단계 도약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성림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이어 신행활동을 위한 법회 지원 등의 활동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천도재 '현대음악'으로 재조명

'(가제)왕생가' 앨범 · 악보 제작…7월 중 출시 예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가 천도재를 현대음악화 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해인사는 최근 종무회의를 통해 천도재를 현대음악으로 재조명하는 사업을 진행키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월간 〈해인〉 편집장 도정 스님이 기획 · 총괄을 맡고 승려 시인인 의정 · 동명 스님, 김형미 시인이 참여해 가사를 붙인다.

가사는 근대기에 활동한 석찬 스님이 불교의식을 집대성해 편찬한 〈석문의범〉과 백파 긍선 스님이 펴낸 종합의례서인 〈작법귀감〉에 근거해 작사된다. 작곡은 작사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에 작곡자 3~4인을 섭외해 진행할 예정이다. 천도(薦度)는 불보살의 힘으로 망혼을 극락과 같이 좋은 곳에 보내줄 것을 천거하는 법식으로 장례를 마친 이후 망혼에게 지내는 불교의례는 모두 천도재에 해당된다. 많은 사찰들에서 일상적으로 천도재가 이뤄져오고 있지만, 재가불자나 일반인들에게는 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해인사가 추진하는 천도재 현대음악화 사업은 일반 대중이 천도재의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죽음이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것을 지양함에 목적이 있다.

도정 스님은 "천도재가 죽은 이들에게 법을 설하는 엄숙하고 딱딱한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주와 재주와 영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세계로 가는 잔치이자 희망이 재의 역할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석문의범〉〈작법귀감〉 토대
도정 스님 등 시인 4명 작사
작곡가 3~4명 선정해 곡 붙여
10곡 수록… "불교예술 확장"

현재 기획된 곡은 총 10곡으로, 모두 기존 찬불가 형식을 탈피한 합창과 독창, 중창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또한 한 편의 뮤지컬처럼 10개의 곡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해 만들 구상도 도정 스님은 갖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오는 7월에는 '(가제)왕생가'라는 제목으로 앨범과 악보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천도재는 전통의식으로 자리했지만 대중화된 불교음악으로 새롭게 발돋움한다.

도정 스님은 "한 편의 연극과 뮤지컬처럼 꾸며질 천도재는 불교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불교 예술의 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인사의 천도재 현대음악화 사업에 대해 불교음악인들은 우선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도 불교 의례라는 범주도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은 "의례는 종교를 상징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 · 공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라며 "천도재에 대한 전통을 살리면서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권장할만 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종만 풍경소리 대표 역시 "천도재가 새로운 모습으로 불자와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시도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며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일선 사찰에서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형진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은 신중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강형진 단장은 "기획자의 방향과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작곡자 선정이 중요하다"며 "기획 목적과 의도에 대한 방향성을 기획자가 잘 판단해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곽 드러나는 문경세계명상마을

4월 경 웰컴센터 완비
2단계 불사도 가시화

총 300억원 규모 대형 불사
자부담 과제, 2021년 완공

문경 봉암사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추진하는 '문경 세계명상마을' 1단계 불사가 4월 경 완료된다.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단장 박희승)은 최근 4월 경 웰컴센터 완공으로 1단계 불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명상기초교육장인 웰컴센터는 현재 외형불사는 끝난 상태로 내부 인테리어 및 상하수도 연결 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지난해 7월 13일 사업단 구성과 함께 문경세계명상마을 착공식을 진행했다. 문경 봉암사 인근 희양산 일대 대지 12만230㎡에 2,600㎡ 규모의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참선 · 명상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된다. 총건축비는 300억원 규모로, 2021년까지 완공되면 300명이 수용가능하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조감도. 웰컴센터가 4월 개원되면 명상프로그램을 일부 접할 수 있다.

명상마을이 조성되면 참선 코스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 기업 임직원, 청소년을 위한 참선 코스를 운영한다. 특히 한국 전통 선 명상을 세계인이 체험하는 공간인 만큼 외국인 명상 수련자를 위한 코스와 무문관 코스, 간화선 및 명상 지도자 양성 코스도 지속적으로 개발 · 진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부담할 불사 자부담 분으로 지난 1차 불사액 10억원 외에도 2차 불사에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며 "2021년 KTX문경 개통과 함께 한국정신문화를 널리 알리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카우트불교연맹 인성함양 스키캠프

1월 22~24일, 홍천 대명리조트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이 1월 22~24일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제6회 인성함양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스키캠프는 스키와 보드 두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2일 입재식에 이어 안전교육 및 기초강습과 함께 저녁에는 국제친선의 밤이 진행된다. 둘째날인 23일에는 스키 보드 강습과 함께 저녁에는 오션월드 테마파크 체험활동도 이어진다. 매일 오전 7시에는 아침예불도 함께 진행된다.

스카우트불교연맹 측은 "자칫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 야외활동 활성화 일환으로 제6회 인성함양스키캠프를 열게 됐다"며 "겨울철 어린이 청소년들의 기분전환과 몸과 마음 단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 (02)722-9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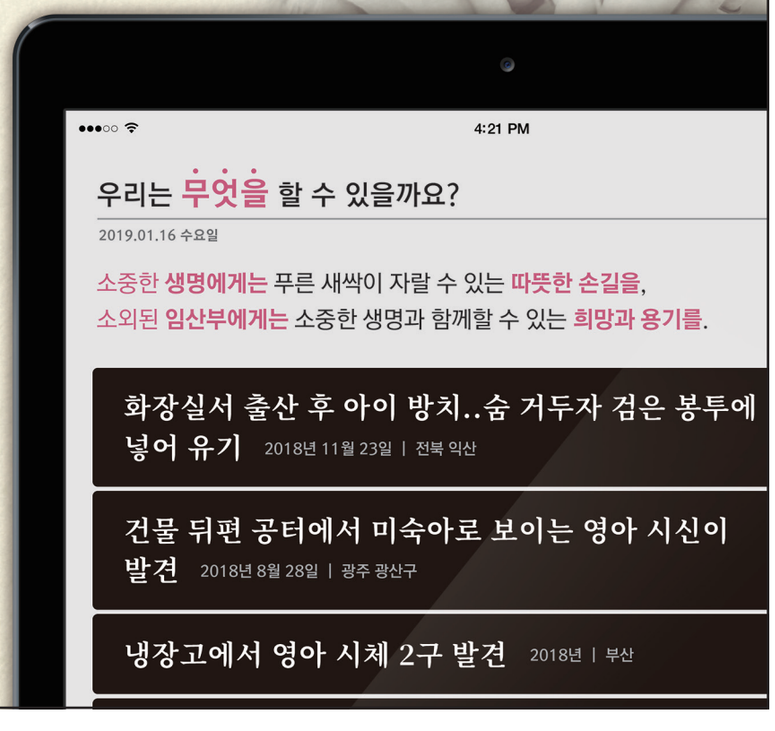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1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2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3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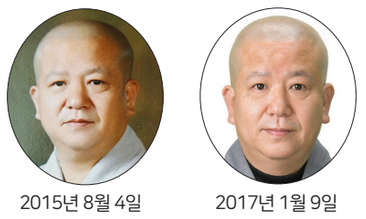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